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배 시간 10분 일찍, 기도와 찬양으로
- ◎ **대림절 4:**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구주 성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 ◎ **성탄예배:** 구주 성탄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 25일 오후 5시 (본당) / 성탄축하 잔치: 오후 6시 (본당) / 식사교제: 오후 7시 (홀)
- ◎ **수련회:** 한해를 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 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담당: 이정인 집사)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주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편 133:1)
주요 3면에 있는 천로역정 줄거리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기도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실시됩니다. 한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특송하실 성도나 기관 신청받습니다)
시간: 오전 5시 30분, 장소: Chapel room 주제: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기도담당: 박일영 장로(16일) 최득수 집사(17일) 박제용 장로(18일) 정진택 집사(19일) 정덕수 장로(20일)
- ◎ **방학:** 공동체 예배는 이번 주부터 1월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 ◎ **감사:** 한 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꽃꽂이로 성탄을 준비하신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 ◎ **선교회 총회 결과:** (회장/총무/회계/서기)
1남: 전인우 2남: 최현철/이정인/고석승 3남: 김철재/경덕현 4남: 이광희
1여: 민선희/박후임/한누리 2여: 한상순/정혜숙 3여: 장태옥/이옥화 4여: 김현주/김경

교우소식

이사: 이옥화 집사 - D 705 / 176 Broadway New market Auckland 전화: (09)529-0953

12월 새벽 기도회 본문

6일: 고후 3:12~18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3일: 고후 7:2~7 관계 회복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20일: 시편 23:5~6 영원히 살리라 27일: 고후 12:11~21 사랑하면 아픔을 감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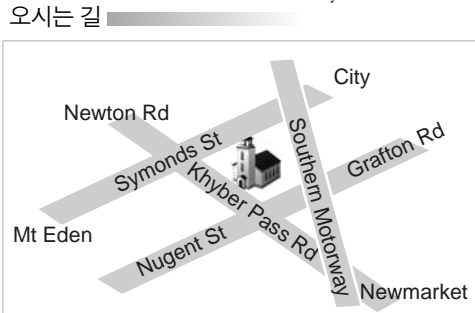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루나인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루나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2013년 12월 22일

15권 51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내게 중요한 것 - 김영봉

주님,
당신이 12월에 나셨는지 3월에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베들레헴에 나셨는지
나사렛에 나셨는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낮은 자들을 찾아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원천리 찾아가
주님을 뵈는 것도 황공한데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다니요!
화려한 궁전과 장엄한 성전을 외면하고
초라한 저희 집에 오셨다니요!
영원한 당신이 먼지로 돌아갈
육신을 입으셨다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저희를
위한 일이었다니요!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추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사 7:14, 요 4:2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7장 다함께
※ 성서교독	118. 구주강림 4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23장 다함께
대표기도	임혜자권사
성경봉독	시편 130:5~6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약속어음 이태한목사
찬송	126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정진택 집사

수요예배 (19:30)

성탄 축하 예배

기도 / 정혜숙 권사

건축헌금 지난주: \$1,000.00
총계: \$634,790.29

금주의 기도제목

교회와 성도를 위해

구주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탄 축하와 수련회가 은혜중에 마치도록, 한해를 쉼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를, 새해도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전교인 수련회에 기독교 고전인 '천로역정' 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신앙 역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줄거리 2: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둘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름은 구원이었다. 크리스천은 무진 애를 써서 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려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의 입구에서 그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크리스천은 기쁨에 못 이겨 경충경충 뛰며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그러나 산 아래 겸손의 골짜기에서 괴물 아블루온을 만났다. 아블루온은 자신을 배반한 죄에 용서를 빌고 섬기지 않는다면 심한 벌을 주겠노라고 외쳤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나는 이미 네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몸을 바쳤으니 다시 네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큰소리로 대항했다. 그러자 아블루온은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서 결집이 흔들렸던 일과 세속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 등을 열거하며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빈정댔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기는 하나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하시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대신 아블루온과 싸워 이겨주셨다

그들이 광야를 거의 벗어날 무렵 그들은 전도자와 다시 만났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전도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며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전도자는 인내로 견디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며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피로써 하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는 꿈에서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반드시 통과해야 할 허영이라는 마을에 도착함을 보았다. 두 순례자는 의복이며 말씨가 시장 사람들과 판이한 데다가 허영의 시장에 놓인 상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상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말았다. 순례자들은 자신들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중이며, 상인들에게 진리만을 구하겠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다고 했으나 재판관은 그들을 정신병자라고 단정하고 마구 때리고 흉투성으로 만든 후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전도자의 말을 떠올리며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고 여겼다. 다시 재판이 시작되고 질투와 미신 그리고 아첨이라는 증인들이 등장하여 순례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믿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다.

그때 나는 수많은 군중들 뒤로 마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환난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를 태워 나팔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를 지나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던 크리스천은 얼마 후 탈출하여 결국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소망이라는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깨끗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고 동행하게 된 것이다.

다시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평원의 맞은편에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비석에는 '뫼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글씨가 보였다. 크리스천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게 되었다고 반가워하며 "만일 오던 중 만났던 데마(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한 자)의 유혹에 빠졌더라면 우리도 저 돌기둥으로 남아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소망은 자신이 데마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부끄러워했다.

◎ 12월 교회알지

한 주간 기도회:
12월 16일(월)~20일(금)
성탄주일:
12월 22일(주일)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수) 오후 5시
송년주일:
12월 29일(주일)
전교인 수련회:
12월 31일(화)~1월 2일(목)

◎ 12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1월 1일 수요: 김태만 집사
1월 1일 애찬: 수련회
1월 5일 주일: 고성일 장로
1월 5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